

# 올 여름 극장가 '3D 영화' 봇물

지난해 불어닥친 제임스 카메론의 3D 영화 '아바타' 열풍은 거셌다.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흥행 성적을 기록한 '아바타'는 우리나라에서도 1330만명의 관객을 동원, 국내 최고 흥행작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드래곤 길들이기' 등 3D 영화는 계속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최고 성수기 중 하나인 여름 방학을 맞아 또 한번 관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우선 '아바타 : 스페셜 에디션'이 8월 26일 관객들을 만난다. 일반판과 같이 상영됐던 지난해와 달리 전국 3D 영화관에서만 상영되는 이번 스페셜판에는 새로운 생명체와 액션 장면 등 미공개 장면 8분 분량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AVATAR)가 8분 이상의 추가 장면을 더해 관객들과 다시 만날 전망이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판도라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다는 관객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아 새로운 편집본을 개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리가 풍부하다.

8월 19일 개봉하는 판타지 액션 영화 '라스트 에어벤더'는 '식스 센스', '싸인'의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물, 불, 흙, 바람을 상징하는 4개 원소를 모두 다룰 줄 아는 유일한 존재 '아양'이 100년 만에 깨어나 불의 제국에 맞서는 과정을 그렸다.

물줄기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거센 불길을 일으키는 액션을 비롯해 광대한 전쟁 장면을 3D 화면으로 표현해 기대를 모은다.

'피라냐'는 흥풍한 식인물고기 피라니아의 습격을 3D 영상으로 그렸다.

파티를 즐기기 위해 불려든 수만 명의 청춘 남녀로 북적이는 빅토리아 호수. 갑작스런 물속 지진으로 인해 200만년 동안 잠들어 있던 피라냐가 깨어나면서 벌어지는 공포를 다룬 작품이다.

'미러', '엑스텐션' 등을 통해 탁월한 스틸러직 감각을 선보였던 알렉산더 아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300' 제작진의 참여로



'라스트 에어벤더'



'토이 스토리'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스텝업 3D'

'토이스토리 3' '라스트에어벤더' '스텝업 3D'...

애니메이션·댄스·공포·판타지 등 장르 다양

아바타 미공개 장면 추가 '스페셜 에디션'도

다음달 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3'은 3D로 만들어져 관객들을 만난다.

'애니메이션 명가' 픽사의 명성을 드높였던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첫 편 등장 당시 사실적인 동작과 재미있는 스토리로 어린 관객들까지 끌어들이던 작품이다.

2편 제작 후 무려 11년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아온 '토이 스토리 3'은 주인공 앤디가 없는 집에서 곤경에 처한 장난감 카우보이 우디와 우주영웅 버즈 등이 평화로운 일상을 찾으려고 힘을 합치는 이야기다.

또 다른 애니메이션 '페이스 칩스-자복의 역습 3D'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3D로 제작된 작품이다. 슈렉을 제작한 존 H. 윌리엄스가 연출한 애니메이션으로 우주 제왕 자복에 맞서 싸우는 미항공우주국(NASA) 침팬지 대원들의 활약상을 보여 준다.

2008년 개봉했던 '스페이스 칩스 : 우주선을 찾아서'의 속편으로 험, 휴스턴 등 전편의 캐릭터가 그대로 등장하며 3D로 재현된 우주비행 장면, 로켓 발사 장면 등 볼거

기확단게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이는 엘리자베스 슈를 비롯, 제리 오코넬 등이 출연한다.

다음 달 5일 개봉하는 '스텝업 3D'는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끈 댄스영화 '스텝업' 시리즈의 3편으로 세계 최고의 댄서들이 출전하는 월드 배틀을 무대로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 열정을 그렸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댄스 장면이 3D로 어떻게 표현될지가 관심거리다.

그밖에 장 자크 망벨로 감독이 바닷속 희귀 생물을 담은 다큐멘터리 '오션월드 3D'도 다음 달 개봉한다. 7년 동안 수중촬영에 1천500시간을 들인 작품으로 전 과정을 3D로 찍었다.

3D 영화는 2011년에도 속속 대가중이다. '더록' 등 블록버스터 영화에 일가견이 있는 마이클 베이 감독이 동화 '현젤과 그레텔'을 3D로 만들 예정이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3D 영화의 맛을 봤던 팀 버튼 감독도 괴수만화를 원작으로 한 '몬스터 포 칼립스'를 준비중이다. /연합뉴스

## 새 영화

## 인생선



다른 이의 꿈에 들어가 생각을 바꾸려는 자들의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1억 7000만달러가 투입된 대형 블록버스터다.

무엇보다 영화 '메멘토'를 통해 이미 비슷한 소재를 다룬데다 '베트맨' 시리즈 중 최고봉으로 꼽히는 '다크 나이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은 작품이다.

드림머신이라는 기계로 타인의 꿈과 접속해 생각을 빼낼 수 있는 미래사회. 생각을 지키는 특수보안요원이면서 또 한 최고의 실력으로 생각을 훔치는 도둑

꿈 속에 꿈, 그 속에 또 꿈...

뒤엎긴 현실과 꿈의 경계

생각을 훔치는 거대한 전쟁

놀란 감독의 놀라운 신세계

인 코브는 대부호 사이토로부터 '인생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인생선'은 단지 생각을 훔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생각을 심는 고난도의 작전이다.

우연한 사고로 국제적인 수배자가 된 코브는 이 임무를 수행하면 꿈에 그리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팀원들이 꿈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책임지는 아서, 꿈의 세계를 설계하고, 세우는 일을 맡은 아리아드네 등 전문가들을 모아 팀을 꾸린다.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 코브 역으로 출연하며 '500일의 썸머'의 조셉 고든 래빗, 일본 배우 와타나베 켄, 킬리언 머피, 엘리자 페이지가 출연한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마리옹 코틸라르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하나투어**

**1등 여행사**

고속도로  
간이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1981-11991

**5년연속 브랜드가치 1위**

# 전세기 취항

## 무안-마카오, 백두산

무안-마카오: 7월 24일 - 8월 14일, 21일  
무안-백두산: 8월 14일 - 8월 21일



**투어뱅크**

여행사 전문 여행사

02-2294-0002


